

# 아파트, 땅 경계 6m 물러나 지어야

## ■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살펴 보니

### 장기 공사중단 방지위해 예치금제 도입

### 리모델링 쉬운 건축땐 용적률 상향 가능

건물을 지을 때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띄어 짓도록 하는 '대지인의 공지기준'(건축선 후퇴)이 7년 만에 부활되고 장기간 공사 중단에 따른 미관훼손 방지·안전 확보·범죄 예방 등을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예치금제'가 신설된다.

광주시는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999년 건축법 개정시 삭제됐던 대지인의 공지기준을 다시 도입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띠어야 하는 거리를 아파트의 경우 6m 이상, 연립주택은 4m 이상, 다세대·다가구주택 1m 이상 등으로 규정했다.

대지인의 공지기준 부활로 건축연면적에 그만큼 감소하게 돼 개발

수익성을 떨어지게 되는 반면, 일조권 확보 등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도입, 연면적 5천~1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비의 1%를 공사 착공시에 안전관리기금으로 예치도록 하는 등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은 일정 규모의 기금을 예치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할 경우 산업지역의 경우 100의 110까지, 준주거지역의 경우 100의 110까지, 주거환경 조성이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안전관리예치금이나 대지인의 공지기준 등이 일종의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문제 등 공공의 목적에 앞서기 때문에 이를 계획대로 정하는 준사법적 기능인 재정(裁定) 기능을 부여하도록 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새 노선·환승 적용 추세

### 시내버스 이용 준공영제 이전수준 회복

#### 배차간격 등 조정 필요

광주시민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10여일만에 개편된 노선과 환승체계에 비교적 잘 적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구립 21일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일까지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에 나타난 ▲날짜별 이용주간 ▲교통수단간 환승률 등을 분석한 결과, 시내버스 이용 승객은 구립 29일 현재 하루 46만4천225명으로 준공영제 시행전인 지난해 11월 1일 평균 46만1천15명을 넘어섰다.

시내버스 이용객은 성탄연휴인 24~25일 25만명 선까지 급감했으나 26일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서 29일에는 11월 평균을 상회했다.

지하철과 마을버스의 이용률도 높아졌다. 교통카드 이용자 중심으로 집계·분석한 결과 구립 20일 지하철

승객은 1만4천878명이었으나, 29일 현재 3만1천380명으로 110.9%나 급증하면서 대중교통 가운데 수송 분담률이 3.7%에서 7.7%로 올랐다.

마을버스 이용객도 1천308명에서 6천450명으로 569.7% 급증하면서 수송 분담률 또한 0.3%에서 1.6%로

### 광주시내버스 날짜별 이용추이

일자별	계	교통카드			현금	승차권
		총건수	환승건수	비율		
11월평균	461,115	355,837	62,270	17.5%	89,582	15,696
12.21(목)	464,020	381,102	83,688	21.9%	76,948	6,070
12.22(금)	435,076	344,665	79,349	23.0%	83,786	6,625
12.23(토)	367,417	283,627	65,973	23.3%	78,928	4,862
12.24(일)	277,650	203,880	46,022	22.6%	70,112	3,658
12.25(월)	259,655	191,315	45,521	23.3%	65,187	3,153
12.26(화)	456,533	368,411	87,927	23.9%	81,986	6,136
12.27(수)	443,989	363,385	87,793	24.2%	74,883	5,721
12.29(목)	451,627	360,736	83,202	23.1%	86,044	4,847
12.29(금)	464,225	367,607	87,041	23.6%	91,611	5,007

신장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이용승객이 11월 평균 수준을 넘어서고, 수단간 환승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환승홍보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이 아니었던 건축신고, 용도변경 등도 형평성 확보 및 수익자 부담차원에서 수수료 납부 대상에 포함, 허가대상 건축물과 함께 수수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입법에 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건축위원회 심의▲규제개혁위원회 심사▲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중 시의회에 상정, 상반기 안에 공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안전관리예치금이나 대지인의 공지기준 등이 일종의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문제 등 공공의 목적에 앞서기 때문에 이를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31사단 장병 릴레이 훈련

향토사단인 육군 31사단(사단장 서길원 소장)은 2일 오전 사단 사령부에서 시무식을 거친 뒤 '사랑의 릴레이 훈련'을 시작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31사단의 훈련행사는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으며, 작년까지 모두 1만8천명의 장병이 훈련에 통참해 약 700만cc의 혈액을 공급했다. 올해도 다음달 23일까지 36개 예하 부대 3천여명의 장병이 훈련에 통참할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mjna@kwangju.co.kr

## (주)무등 등 8곳

## 유망中企 선정

광주시는 2일 ㈜무등을 비롯한 8대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기업은 ▲광축메 응용제품 생산업체인 창성엔지니어링㈜ ▲콘텍스 렌즈를 생산하는 뉴바이오㈜ ▲효소생산업체인 애니젠㈜ ▲PVC 생산업체인 ㈜무등 ▲타이어제조 및 물류이송기기 제조업체인 일종합기계㈜ ▲또 의료기

기기를 생산하는 쿠팡알엔디 ▲광통신부품 생산업체인 ㈜링크옵틱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호원 등이다.

이들 업체에는 유망중소기업 인증서와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참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국제결혼 자녀위한 대안학교 생긴다

### 광산 평동에 18일 개교

국제결혼자녀(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해 낳은 2세)를 위한 대안학교인 '새날 학교'가 광주에 문을 연다.

2일 (사)외국인 근로자문화센터(소장 이천영·전남여성교사)에 따르면 오는 18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사우소 내 외국인 근로자문화센터 건물에서 '새날 학교' 개교식을 갖는다.

첫 입학을 하는 학생들은 13~18세의 국제결혼자녀 3명과 새터민 2명 등 모두 5명이며, 추가로 국제결혼자녀와 유학생 자녀 등 15명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교직원은 교장·교감·교사·행정 실직원 등 모두 8명으로 학교에 상주하며, 외국어·음악·영어·과학·사회·미술 등 6개 과목 교사 21명이 수업을 진행한다. 또 영어는 물론 중국·러시아·몽골·태국·베트남·네덜란드 등 7개 외국어 과목에 14명의 교사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 2006 충무·화랑훈련

### 광주시 대통령 표창

광주시가 '2006 충무·화랑훈련'에 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시는 뛰어난 비상대처 능력과 일사분란한 통합방위지휘소 운영 등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희망의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따뜻한 힐링과 사랑 속에 그동안 배움이 주신 흔적에 관심으로 힐링드립니다.

오는 1월 1일 대전에서는 고령 학부모들과 함께 힐링과 사랑 속에 힐링과 청정스런 그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더 큰 감동으로 힐링을 더해 모시겠습니다.

## 중국어 3개월이면 된다!!



기본 중국어 예느정도 수준이 나오면 3개월

기본 중국어 예느정도 수준이 나오면 3개월